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8, 마태의 왕국과 특징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좋아, 계속해서 가자. 먼저 기도로 시작한 다음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2장, 3장, 4장에서 예수님을 마태복음의 성취로 묘사하는 몇 가지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우리는 지금 예수 가르침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인 잘 알려진 산상수훈인 5장부터 7장을 잠시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런 다음 빠르게 살펴보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마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거나 적어도 마태가 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는 아니라고 마태가 강조하는 주제나 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태가 묘사한 예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그에 대해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리고 아마도 Mark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노트에서 제가 많은 설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토끼 트레일 같은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요 초점이었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을 때 무엇을 제시하셨는가? 독자들과 첫 번째 청취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지어내시고 허공에서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성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Mark로도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마태복음과 우리가 고려하는 다른 신약성서의 책들에 대한 우리의 토론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원래의 맥락에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오늘날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을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나누거나 예수님의 다섯 가지 주요 담화나 가르침 블록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블록 중 하나이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마도 산상 수훈일 것입니다. 산상 수훈은 우리가 산상 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공통된 견해 중 하나는 제가 설교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문제, 즉 우리가 설교를 율법과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율법과 요구, 즉 순종, 즉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행위를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율법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설교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들의 목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 원수를 미워하면 살인을 행한 것과 같이 죄가 있는 것이니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사람이 발견한 것과 유사한 명령을 내리느니라 구약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실제로 율법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복음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것은 법의 요구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법과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답은, 산상수훈은 주로 우리에게 부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척도이며,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주요 기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며,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는 지침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관하지 마세요. 따라서 율법은 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점과 죄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우리 자신을 던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산상수훈을 읽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자신의 자원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잘 알려진 신학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주신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설교의 맥락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가르침의 맥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나 통치나 다스림은 이미 남자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고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재의 현실입니다. 산상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도래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시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지시사항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그들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정 생활 방식을 요구한다면 산상수훈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내용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5.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분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 이요 . 그리고 그 중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시렵니까? 애통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시작하시나요?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개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분께 드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육체적인 수준에서 자원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원이 파산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다음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맥락에 비추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성서의 일부 본문, 아마도 구약성서 수업에서 보았던 일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구약성서에서 애도의 맥락은 일반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특히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통할 것을 자주 촉구했습니다.

왜? 즉, 이것은 내가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슬픔인가요, 아니면 단지 내 삶이 주변을 둘러보니 삶이 끔찍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삶이 공평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슬퍼하고 슬퍼서

웁니다. 그게 다야? 구약에서 애도의 맥락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 다시 말해보시겠어요? 아, 이스라엘의 죄성. 애도하는군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애도는 죄악에 대한 반응이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애통할 것을 촉구할 때, 그것은 죄로 인한 애도와 회개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애도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하라는 부르심은 죄악 때문에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다음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덕적 파산을 인정하는 사람, 즉 그 사람에게 아무런 자원이나 영적인 자원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자신들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와 애통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과된 요구나 율법과는 거리가 멀고, 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는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단순한 윤리 그 이상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 자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고, 스스로 자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가 부족하여 애통하면서도, 주리고 목마른 자들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들어갈 자에게 기대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음에서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읽을 때 그것은 누구도 따라 살 수 없는 이상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주실 수 있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가정한 것입니다.

괜찮은. 사실 저는 다음 부분인 대명령으로 건너뛰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했듯이, 대위임령은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에 이와 같이 들어맞습니다. 마태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이 만일 예수가 참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메시야이시며, 마태가 이방인에 대하여 말한 것이 또한 참이라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고, 그 다음에 대위임령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 곧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지 말라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마태가 예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이 옳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세계적인 사명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의 추종자들의 의무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 자신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 즉 자신을 메시아 왕으로 제시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를 이루려 하되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불리셨고, 그분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에게 미칠 창세기 12장의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전하라는 대명령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소위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을 토대로 마태복음의 몇 가지 주요 강조점과 몇 가지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말은, 매튜가 애초에 왜 앉아서 이 책을 썼는가? 우선,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일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마태복음이 결코 나오지 않고 그가 글을 쓰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독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측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고 1세기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일종의 탐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가 왜 이것을 썼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그림을 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즉, 유대교, 유대교 유산에서 나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비기독교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 즉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강력한 분열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에세네파와 같은 그룹, 우리가 살펴본 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는 비기독교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 사이에 아직 강력한 구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세기의 많은 기독교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기독교.

그러나 이 시점에서 기독교는 아직 유대교와 그다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여전히 회당과 비기독교 유대인들과 어느 정도 접촉을 갖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세기쯤에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기독교 유대인 중 일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궁금해하고 논쟁을 벌였는지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교회가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더 많은 연료를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유대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튜는 어디에 속할까요? 마태, 내 생각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가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현자들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는 왜 이 외국 점성가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를 경배하게 합니까? 마태는 왜 예수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는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방인을 포함시킬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더 이방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사생아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께서는 친히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는 길을 지적하시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방인에 대한 강조는 아마도 일종의 마태의 변증이자 예수 자신이 교회가 이방인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변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고 있거나,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에 대해 궁금해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가 왜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글세, 마태는 그에 대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될 것이며 그의 추종자 그룹에는 이방인도 포함될 것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교회가 이방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다른 비기독교 유대인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와 순종을 격려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제, 왜, 또는 무엇을 하는가, 마태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다른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마태는 다른 복음서가 그렇지 않거나 적어도 마태복음과 같은 정도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을 강조합니까? 다른 복음서는 그래요? 자, 이것이 마태가 강조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마태가 말하고 강조하는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로 마태가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강조하지 않는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또는 적어도 그만큼 강조하고 싶습니다. , 다른 복음서에서.

그래서 먼저 마태의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태의 예수 묘사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마태가 예수를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성서 사무엘하 7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다윗의 계보에 있는 메시아로 분명하게 묘사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까지 계속되는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지만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가 약속된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는 이것이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두 번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이고 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대부분 그리스도가 메시아, 다윗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여러 독특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아마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에 계시지만 아마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주요 위치에서 예수는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아들로 분류되거나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 특히 율법을 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순종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인데, 그 성취 곧 율법, 율법이 실제로 움직이고 가리키고 기대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은 구약 율법과 구약 전체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2장에서 예수가 새로운 모세로 묘사된 것을 기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로 묘사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분을 세상과 열방의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매튜는 뭐해요? 그는 구약성경의 이 모든 가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분명히 밝히기를 원하며, 이것이 바로 마태가 구약과 가장 분명한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적합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태는 구약성경이 불완전한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시작된 이야기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자 절정이자 결론이자 성취임을 보여줌으로써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성공하십니다.

그는 요나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합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능가하는 절정이심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의 결론과 절정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로 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수께서 왜 항상 가르치기 위해 산에 올라가시는지 생각합니다.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산에 올라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러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매튜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명령(The Great Commission)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만나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곧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반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산 위에서. 그래서 마태오 예수는 예수를 모세와 같으나 모세보다 더 큰 분으로 묘사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2장에서 예수님이 왕을 피해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는 유사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제시하고 싶어합니다. 마태는 예수님도 현명한 선생님이로 제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다섯 가지 주요 담화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의 끝에 도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 다섯 가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은 5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태가 예수에 대해 말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마태가 예수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뚜렷한 강조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이미 구약의 성취에 관해 조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의 절정이자 성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신약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서에서 그분에 대해 예언할 때 예수님이 구약성을 성취하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예언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도래에 비추어 구약을 다시 읽고 구약의 이 모든 가닥과 단편과 부분과 인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반복되고 절정에 도달하는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다면 마태는 어떻게 예수가 율법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구약의 율법이 기대하고 도달하려고 했던 참된 생활 방식과 이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에서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구약이 지정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것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은 마태복음의 또 다른 주요 주제입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맨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셨는가? 그 말은 무슨 뜻이었나요? 그의 청취자들은 무엇을 기대 했을 까요? 마지막으로 제자도라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영속시킬 추종자 그룹을 준비하시고, 기대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대명령에서 매우 분명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순종으로 응답하고 그의 사명을 영속시킬 추종자 그룹을 위해 준비하고 공급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도라는 주제와 함께 순종으로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 그룹을 위한 준비를 하신 예수님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예수의 도착과 그의 가르침,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 생각해 보세요. 1세기와 그 이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역사적 자료 중 일부에서 살펴본 내용을 고려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 학기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아마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질문을 받더라도 추종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유대인 추종자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특히 우리가 살펴본 일부 조사, 즉 구약성서까지 이어지는 역사, 정치, 문화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모세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바울의 글에서 살펴보겠지만, 모세의 율법은 종종 신분 표시, 즉 여러분을 다른 나라, 이방인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누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 민족에 속한 민족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마태가 예수를 참 이스라엘로 제시하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재정의하십시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바로 그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와 유혹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참 이스라엘인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을 순종하거나 유대인과 동일시하는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만 결정되고 정의됩니다. 그러면 다시 구약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고, 민족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유대 민족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과 구약 전체를 성취하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그것을 재정의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진정한 추종자들은 누구입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제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속하며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방인을 강조하여 지금 결정적인 요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은 더 이상 율법과 다른 유대인 정체성 표시에 중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제자에 대한 이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순종하여 응답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명을 수행할 추종자 그룹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추종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했습니다.

더 이상 법과 유대인의 특권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성서의 다른 여러 문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괜찮은. 지금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로써 우리는 마태복음의 끝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트의 첫 번째 설명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는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제가 말하는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잊어버리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제안하셨을 때 무엇을 의미하셨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묘사의 지배적인 주제, 그가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방법, 그리스도와 구약성서의 관계,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에 대한 초점 등 마태와 관련된 모든 질문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순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도.

이것들은 지배적인 주제 중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매튜에 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당신은 시험이나 그런 일에서 내가 매튜에 관해 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러 오실 때 무슨 뜻으로 오셨습니까? 회개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제안하셨는가?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독자들,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무엇을 했을 것이며 무엇을 이해했을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왜 왕국을 제안하셨는가? 왜 그는 죄로부터 구원을 베풀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 말은, 그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왜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당신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전파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제안하셨는가? 그는 무엇을 제안하고 있었습니까? 글썄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조금, 사실 아주 먼 길, 사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왕국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할 때, 아니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제안하실 때, 왕국에 의해,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 또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가리킨다. 영국과 같은 지정학적 지역이나 특정 기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이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실 때 제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기나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역동적인 개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국을 이해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통치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약의 배경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이 내용을 매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성서 개관 과정이 아니며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특히 마태복음에서 행하신 거의 모든 일이 구약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하나님의 왕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글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암시를 연습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구약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미지는 주로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고 지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이미지가 언급될 때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그 통치를 반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며, 그분의 통치와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대로 아담과 하와가 이에 실패하여 죄를 범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온 땅을 다스리려는 의도입니다. 음, 다음은 여러분의 메모에서 건너뛴 수 있다면 다윗 왕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영원히 앉을 사람을 두시리라는 것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윗과 이 언약을 맺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가 이 땅을 통치하게 하려는 그분의 뜻을 확립하고 회복하시는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다윗 왕조를 통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왕을 주신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에 항상 왕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곧 인류가 온 땅을 다스릴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며 온 땅을 다스리려는 그분의 의도를 회복하실 방법은 다윗의 가계에서 한 왕, 곧 온 땅을 다스리고 궁극적으로 다스릴 메시아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다윗의 왕 메시아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류가 온 땅을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제는 이스라엘, 그들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과 왕이 여전히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바벨론과 앗수르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 하나, 문제 중 하나는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왕좌에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실 것과 인류가 온 땅을 다스리려는 그분의 뜻을 회복하실 것은 왕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 가계에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외국에 있고, 왕좌에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윗 계열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인류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 의도의 일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를 예상하며 끝을 맺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마침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빨리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러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운명으로 이끌 다윗 계열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제안하실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통치할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는 온 땅을 다스리며 인류를 의도된 목표와 운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일종의 추가 성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는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다른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1세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생각하였느냐? 그리고 여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래, 여기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사람이 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로 인해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겼을 것이고, 이제는 왕과 다윗의 계열이 아닌 가이사가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왕좌에 앉은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오늘날의 초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침내 우리를 로마제국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여기에 철장으로 원수들을 다스릴 분이 계시며,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전파하려는 우리의 의도된 목적지로 인도하실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적어도 처음에는 예수께서 왜 그렇게 빨리 많은 추종자들을 모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통치 하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누카 명절의 뿌리와 외국 영향으로부터 해방된 아주 짧은 기간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후에 유대인들은 외국의 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적들로부터 해방시킬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윗의 통치를 약속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께로 모여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렇게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그 왕국을 분명히 제시하셨지만,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그 왕국을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선은 대부분의 유대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했을 것,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약성서에 젖어 생각했을 것, 구약성서에서 생각했을 것, 즉 그들이 살고 있던 것을 나타냅니다. 이 시대, 이 현 시대는 기본적으로 악과 죄, 외국의 영향력과 억압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자신들을 보았으며, 이 화살은 다가올 시대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는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이며, 사무엘하와 선지자들에 나오는 다윗 왕의 출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땅을 방문하실 것이며, 메시아를 통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인용하는 유명한 구절인 이사야 9장은 이 아들이 다윗의 가계에 속할 것이며 영원히 통치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올 것이고, 그러면 이 시대는 종말, 결정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평화와 축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대표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 나라시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제안하실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있어.

여기에 다가올 시대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항상 필연적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가올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평화와 축복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 새 창조의 시대를 시작하고 안내하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국을 제안하십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왕국은 두 번에 나누어서 올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밑줄은 이 시대를 나타내고, 이 윗줄은 다가올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십자가는 그분의 죽음을 상징하지만, 또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함께 예수님은 왕국을 제안하시지만, 그것이 이 시대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계속됩니다.

완전히 근절하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예,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왕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다가올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도래했지만, 죄와 악이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현 세대를 멸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실 곳으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완성하시고 완전함과 충만함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시대에 악을 멸하실 것이며, 영원히 지속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들 그걸 보나요? 그래서 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바에 따르면, 왕국은 비록 아직 완전하게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혹은 아직이 아닌 개념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출범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종말 왕국을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두 사건으로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초림 때 부분적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국이 이미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지금 당장 다윗의 왕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방법, 하나님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방식으로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끝에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만하게 올 날을 기대하면서 부분적으로 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고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둘 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왕국은 이미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미래 왕국을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완전함과 충만함과 완전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부분적으로 이미 여기에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랬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가 당신에게 질문했을 때 당신이 이미 말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대답하면 당신이 80% 정도 맞을 것이라고 농담합니다.

너무 무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국에 대한 마태의 견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나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왕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함과 충만함과 완전함으로 오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 즉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워 보이는 신약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나는 당신이 이것을 얻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건 중요하다. 다윗의 약속이 성취되는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그것을 두 가지 행위로 나누십니다. 그분의 초림 때 왕국이 도래했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오지는 않았습니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차트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선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현 악한 시대 사이에 살았던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도 또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윗을 통해 약속된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국을 제시하러 왔다.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미래에 올 완전한 실현, 완성에 앞서 지금 그곳에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화살표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본 것이 하나의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개의 개별 이벤트로 나누어집니다.